

## 대명코퍼레이션, 2019년 당기순이익 632억 원... 흑자전환

- ▶ 리조트 지분 양도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 큰 폭으로 확대
- ▶ 리조트 사업 성과가 올해 실적에서 제외되며 매출액/영업이익 ↓
- ▶ 렌탈 사업 진출을 통한 신규 성장 모멘텀 구축 중, 기업의 대표 사업 분야로 성장 자신

<2020-02-13> 대명코퍼레이션(007720, 각자대표 김정훈, 관광수)이 2019년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162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632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사업 지출을 목표로 기존 리조트 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 성과가 제외되면서 2018년과 비교해 일시적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리조트 지분 양도 금액이 이익에 반영되며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지난해 7월 신규 사업 진출을 목표로 리조트 사업을 계열사에 양도한 바 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주력 사업인 MRO(기업소모성자재)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 기초 속에, 신규 사업 역량이 본격 발휘될 예정으로 2020년은 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MRO 사업을 확대 적용한 렌탈 사업을 통해 신사업 모멘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주력분야인 MRO 부문의 경쟁력과 대명소노그룹의 인프라가 더해져 기업의 새로운 대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료문의 : 대명코퍼레이션 김양호 매니저      02) 2222-7863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 6011-2000(#138)